

삼천포 프라자(대형할인매장) 입점반대 결의안

| | |
|----------|--------|
| 의안 번호 | 제 52 호 |
|----------|--------|

발의연월일 2005. 9. 2.
발 의 자 이삼수 의원외 13인

1. 발의

STS(주)의 삼천포프라자 대형할인매장 입점 반대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발의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STS개발(주)측은 사천시 벌리동 구 삼화호텔 부지와 인근 부지를 매입 복합쇼핑몰을 취급 판매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대형할인매장을 신축하여 직영과 분양,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 대형할인매장이 개점되면 지역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은 지역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재래시장 상인들이 생업을 접어야 할 위기를 맞게 될 경우도 있고 교통체증이 점차 심화되어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 사천지역 대형할인매장 입점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삼천포 프라자 신축에 따른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대해 현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 교통체증과 향후 교통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 업체 측의 일방적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결과라며 사천시에서 공공기관인 지방대학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도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를 희망하고 있으며
-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경우 탐마트, 중소 유통업체 등으로 가뜩이나 상권 축소로 몸살을 앓는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인구감소로 인한 서민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사천시의회의원 일동은 대형할인매장 입점 반대를 강력히 결의하는 바임.

3. 주요내용

- 가.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재검토 협의토록 하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교통체증 유발 시설 설치 인·허가는 절대 금지
- 나.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 살리기
- 다. 대형할인매장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할 제도적 방안 및 영세상공인을
보호할 대책 마련.

4. 결의(안) : 별첨

삼천포 프라자 대형할인매장 입점 반대 결의안

최근 STS개발(주)가 사천시 벌리동 구 삼화호텔부지와 인근 부지를 매입 복합쇼핑몰을 취급하기 위한 대형할인매장을 신축하여 회사 직영과 분양,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이 개점되면 지역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등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재래시장 상인들이 생업을 접어야 할 위기를 맞게 될 우려도 있고 주변의 교통체증이 점차 심화되어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사천지역대형할인매장 입점저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삼천포 프라자 신축에 따른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대해 현 벌리동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 교통체증과 향후 교통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고, 사천시가 주관이 되어 공공기관인 지방대학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도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112,300명의 우리시에 대형할인매장이 입점될 경우 탐마트, 중소 유통업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결국은 인구 감소로 이어져 서민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 살리기 취지에 어긋나므로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재검토 협의토록 하고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교통체증 유발시설 설치 인·허가는 절대 금지할 것을 사천시가 적극 노력토록 촉구한다.

둘째,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앞장선다.
셋째, 대형할인매장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할 제도적 방안 및 영세
상공인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한다.

2005년 9월 6일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